17~18세기 동인도회사를 통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복식문화교류 연구

김 명 은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Research on the Exchange of Costume Culture between Netherlands and Japan through 17-18 Century Dutch East India Company

Myung-Eun Kim · Soo-Jeong Ba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received date: 2015. 3. 18, revised date: 2015. 4. 3, accepted date: 2015. 5. 28)

ABSTRACT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take a bilateral look into cultural exchanges of the Netherlands and Japan through the *East India Company* and thereby improve the general understanding in regards to the exchanges of costume cultur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study conducted qualitative analyses on features of contemporary costumes of the Netherlands and Japan from 1602 to 1799 by investigating the secondary sources, such as the histories of costumes, arts, and liter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raditional sleeves of the Japanese *Kimono* were basically cut out in a straight line. However due to the growing popularity of the *kimono* home gown in Europe, the producers of the *kimono* in India as well as several other European countries modified them into western-style sleeves. Regarding the costumes of the Netherlands, which were introduced to Japan, the study found that Japan imported Dutch fabrics, instead of specific clothing items. In Japan, costume controls and anti-conspicuous consumption regulations among social classes including a closed-door policy had negative effects on both developments and exchanges of costumes of the country.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Jinbaori*, a costume for ruling classes, Japan was open to using fabrics, patterns and designs of the West. In light of what have been discussed so far,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costum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tarted long after their first business of the general cultural exchanges. Though it is clear that the advancements in the natural sciences that the Japanese made can be attributed to the West, Japan was one of the nations that impacted the costume cultures in Europe.

Key words: cultural exchange(문화교류), *East India Company*(동인도회사),
International trade(국제무역),

본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 플러스 사업, S15HR15D0801)

Corresponding author: Soo-Jeong Bae, e-mail: sjbac@chonnam.ac.kr

I. 서론

네덜란드(Netherlands)는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여 10~13세기에는 상업 중심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6세기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1602년 인도·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무역로 확보를 위한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 Dutch East India Company)를 설립하여 세계제일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경제·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East India Company of the Netherlands*, 2014; *Netherlands*, 2014).

네덜란드 무역상이 처음 아시아로 향해한 것은 1595년으로, 포르투갈(Portugal)이 장악하고 있던 희망봉을 남쪽으로 우회하여 자바(Java)섬에 이른 것이었는데, 3년 뒤에는 더 많은 함대가 출항하여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네덜란드 왕실과 몇몇 자본가들은 동남아 무역권을 집중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였다 (Yang, Choi, & Lee, 2003).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암스테르담(Amsterdam), 호른(Hoorn), 엔크호이젠(Enkhuizen), 미델뷔르흐(Middelburg), 로테르담(Rotterdam), 델프트(Delft) 여섯 개 지역에 지부를 갖춘 연합체제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해상무역에서 네덜란드에 엄청난 이익을 남겨주었다. 영국의 역사가 박서(Charles Ralph Boxer, 1904~2000)는 200년에 걸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17세기는 '황금의 시대', 18세기는 '허상의 시대'라고 요약하고 있다(Asada, 2004). 이는 17세기의 동인도회사를 통한 동양의 독점무역이 네덜란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었지만, 18세기 이르러 이익이 감소되고 1799년에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609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일본에 진출하여 나가사키(長崎)의 히라도(平戸)에 상관을 개설하였는데 그 조건은 막부(幕府, 1603~1868, 근대 일본의 중앙정부)의 엄격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1637년~38년에 걸쳐 천주교를 믿는 농민의 반란인 '시미바라(島原)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네덜란

드 동인도회사의 무역선이 포격에 가담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일본과의 독점무역이 성사되었다(Saeng, 2003). 1641년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로 상관을 옮긴 이후 네덜란드인은 데지마에서만 주거가 허락되었는데, 이곳에서 일본인들은 '난학(蘭學)'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학문 및 문화를 배워갔다. 이렇듯 네덜란드 상관은 아시아 여러 상관 중에서도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던 일본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 본국의 번영에 기여하였다(Asada, 2004).

무역을 목적으로 시작된 동·서양의 접촉은 자연스럽게 문화의 교류도 수반하였다. 네덜란드는 일본의 '기모노(着物)'를 받아 들여 200년 뒤인 19세기의 '자포니즘(Japonisme)'이라는 동양풍의 유행을 예고하였고, 일본은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면서도 네덜란드의 의학과 학문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도자기 생산이 여의치 않을 시기에는 중국 도자기의 대용으로 일본의 '히젠(肥前) 도자기'(Yoshiro, 2013)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유럽에 수출하는 등 당시 동·서양의 무역은 매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양의 무역 및 문화교류가 활발해진 17-18세기를 전후하여 양방향의 관점에서 동·서양의 교류를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시기 네덜란드의 복식 혹은 문화를 다룬 선행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유주리의 17세기 네덜란드 복식에 관한 연구(Yoo & Cho, 1997; Yoo, 1999; Yoo & Cho, 1999)와 배수정의 17세기 여성 시민복과 시민문화에 관한 연구(Bae, 2013)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와 복식, 문화를 고찰하였고 여기에 미친 동양의 영향을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동서 문명의 교류사를 다룬 저서로는 티머시 브룩(Timothy Brook)의 '베르메르의 모자(Vermeer's Hat)'(Brook, 2008)가 있으나 이 역시 복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였으므로 복식문화교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인도회사의 무역을 통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복식문화교류를 양방향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서양의 복

식교류를 이해하는데 있다. 연구의 자료는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복식사, 미술사, 문화사 등 다양한 선행 연구와 관련문헌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동시대의 네덜란드 복식과 일본 복식의 특징과 상호간의 복식문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존재한 1602년부터 179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II.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한 문화교류

17세기 일본 막부의 '쇄국(鎖國)·해금정책(海禁政策)'에 의해 나가사키는 유일한 무역항으로 번성하여 네덜란드와 중국 민간상인들과의 교역이 활발했으며, 이 이외에도 마쓰마에(松前)와 쓰시마(對馬)는 중국, 러시아, 조선을 대상으로, 류큐(琉球)는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였다. 특히, 나가사키 항구는 마쓰마에, 쓰시마, 류큐 항구를 통괄하는 막부 외교정책 실현의 중심지로 기독교 금지와 무역통제를 중점으로 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Shin, 2009). 나가사키 항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는 영국과 포르투갈 등 경쟁 상대국을 제치고 일본 무역의 독점권을 장악하였다. 막부는 독점 무역권을 네덜란드에 부여한 대신 해외정보의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 선박이 나가사키에 입항 할 때마다 그 정보를 정리한 풍설서(和蘭風說書)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러한 풍설서는 중국 선박에도 제출하게 하였는데(唐船風說書), 이것은 당시 서유럽 세계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막부의 대외정책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풍설서의 존재는 근세 일본의 '쇄국'이 유럽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와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설정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hin, 2009).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아시아에 수출한 상품의 대부분은 멕시코, 페루, 독일산 은이었으며, 무역의 이익금으로 자바 산 또는 인도 산 후추, 실론(Ceylon)산 육계, 마르크(Mark)제도 산의 정향

(clove), 육두구(nutmeg), 메스(mace) 등의 향신료, 중국산 도자기, 페르시아(Persia)산의 생사, 견직물 등 유럽에 수요가 있는 상품을 본국에 수출함으로써 수익을 올렸다(Saeng, 2003).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에서 수출된 품목 중 은(銀), 구리, 도자기, 기모노는 주요 수출품이었다. 한편 17세기 네덜란드 선박이 일본에 가져온 수입품목의 60%는 중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제조된 생사와 견직물이었다. 점차 일본의 견직물 생산이 발달함에 따라 네덜란드 무역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대신 모직물, 면직물 그리고 설탕의 수입은 증가하였다(Yoshiro, 2013). 이처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이익의 주요 원천은 향신료와 직물 무역이었다. 향신료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는 인도에서 1파운드당 30센트(cent)의 가격에 구입한 향신료를 네덜란드 시장에서 1파운드당 100센트에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17세기 초, 중반까지 동인도회사는 이처럼 향신료 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CCTV 30-minute economy team, 2012). 그러나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향신료 수요가 줄어들고 인도산 면제품인 캘리코(calico)를 주로 수입하는 18세기형 무역으로 변화하면서 점차 영국 동인도회사로 무역의 중심이 이동하였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1. 일본의 히젠(肥前) 도자기

중국에서 시작된 도자문화는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의 도자사(陶器史)를 주도해왔다. 특히 고대 무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로 알려진 장시성(江西省) 동북부의 경덕진(景德鎮)의 도자기는 이미 송 왕조 시절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명 왕조 말기와 청 왕조 초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상황은 중국 도자기의 질을 저하시켰고, 점차 궁정용 가마인 관요(官窯)도 제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경덕진의 질 좋은 청화백자 보다는 복건(福建)등지에서 제작된 조악한 청화백자들이 이를 대체하였고, 이러한 혼란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일본의 도자기로 유럽 내 동양 도자기의 수요를 충족시켰다(Bang, 2009).

일본의 도자기 제작은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

과 1598년 정유재란(丁酉再亂)에 의해 히젠(肥前, 현재의 나가사키현과 사가현 부분에 존재한 일본의 옛 지명) 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조선인 도공들에 의해 1610년경 시작되었으며, 아리타 도자기(有田焼), 이마리 도자기(伊万里焼)는 히젠 지역의 도자기중 하나이다(Yoshiro, 2013).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에 건너간 이삼평(李參平, 미상~1656)이 사가현(佐賀縣) 아리타(有田)의 이즈미산(泉山)에서 백자광(白磁礦)을 발견하여, 1605년경 이곳에 '텐구다니요(天狗谷窯)'를 열었는데 이것이 일본 도자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Lee Sampyeong, 2014). 에도(江戸) 후기에 이 아리타 및 이마리 도자기는 일본 여러 지방의 도자기 중 최고의 품질로 발전하였고, 이마리 항구를 통하여 해외로 널리 수출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 도자기의 대체품으로 취급되었다(Lee Sampyeong, 2014).

하지만 히젠 도자기가 늘 중국 도자기의 대체품은 아니었다. 이삼평이 사망한 1656년에 이미 아리타 도자기의 명성이 해외까지 알려져 있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이 도자기를 유럽 및 동남아로 수출하였으며 이것은 유럽 자기에 영향을 주었다(Kakiemon porcelains, 2014). 1650년대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히젠 도자기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659년에는 네덜란드,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지역에 히젠 도자기가 수출되었다(Yoshiro, 2013). 일본은 도자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1682년까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하여 수출한 도자기는 190,000점이 넘었다고 한다(Koo, 2008).

아리타 도자기(Fig. 1)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도자기에 붉은색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아카에(赤繪) 기법이 선보이면서 부터였다. 아카에 기법은 중국의 채색자기 제작기법을 배운 사카이다 가키에몬(柿右衛門)이 1640년대 초에 개발하였으며, 이 기법의 개발로 조선풍 도자기와 중국풍의 그림이 결합하여 일본풍 도자기가 탄생하였고,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의 자기는 중국 및 조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Koo, 2008). <Fig. 2>에 제시된 가키에몬(Kakiemon) 양식으로 제작된 자기의 색상은 철적색(鐵赤色)과 하늘색, 녹색, 황색이며 금박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1680~1720년경의 제품들은 자기의 흰 여백을 대부분 살려두고 붉은색 그림을 한쪽에 배치한 비대칭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Kakiemon porcelains, 2014).

점차 일본 도자기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히라도(Hirado), 나가사키(Nagasaki) 항, 아리타(Arita), 이마리(Imari) 4개의 지역을 통칭하는 히젠번(藩)은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생산 공정은 도자기 빚기, 그림 그리기, 세공, 불 지피기 등으로 분화되었다. 특히 디자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서양인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도자기가 제작되었다. 히젠번 직영공장에서는 고급 백자와 청자가 생산되었고, 그곳 영주뿐만 아니라 조정, 에도막부, 여러 다이묘(大名)와

<Fig. 1>
Arita porcelains
in the early 17th century
(Arita Sanpo, n.d.-a)

<Fig. 2>
Kakiemon style Arita porcelains
in the late 17th century
(Arita Sanpo, n.d.-b)

사원 등에 진상 되었다('Daimyo', 2014).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주문을 받은 다구(茶具), 향로, 향아리, 장식품, 다이묘 전용 식기류 등의 상품도 히젠번 직영공장에서 생산하였다(Koo, 2008). 이처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한 일본의 도자기 수출은 중국, 조선,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이의 정치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교류를 보여 주고 있다.

2. 일본에 유입된 네덜란드 학문-난학(蘭學)

일본의 역사가들은 막부(幕府)가 정권을 잡은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 260여년을 쇄국의 시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쇄국의 시대에도 일본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서양 문물을 수입하였고, 중국으로부터 한역서양서적을 비롯하여 생사, 견직물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조선과도 4~5백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조선 통신사(朝鮮通信使, 1336~1573)를 받아들이며서 왕성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었고, 대마도(對馬島)를 거점으로 한 조선과의 간접적인 상거래 이외에도 연간 20척 이상의 무역선을 조선에 보내어 인삼, 곡물, 도자기 등의 상품을 수입하였다(Song, 2001).

데지마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상인들은 외부 지역 출입이 금지되었지만, 일 년에 한 번씩 에도성(江戸城)에 가서 쇼군을 알현하는 참부(參府)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자유롭게 일본을 구경할 수 있었다. 1644년부터는 막부의 요청에 따라 유럽정세를 설명한 풍설서를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풍설서는 당시의 막부 관리들에게도 중요한 대외 정책 자료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일본의 양학(洋學) 수용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일본의 양학 수용은 네덜란드 상관을 통하여 서양의 천문, 지리, 풍속 등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홍모류의학'(紅毛流醫學)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Song, 2001).

일본이 외국과의 무역이나 문화, 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풍설서를 작성하고,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네덜란드 통역사들이었다. 통역사들은 자신의 언어 능력과 학문적 관심을 바탕으로 서구지식을

수용하고 그것을 막부와 당시 지식인에게 전달했던 능동적인 특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들은 난학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에도참부를 통해서 서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막부 및 에도 지식인과 네덜란드간의 직접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Kim, 2007).

네덜란드 상인이 일본에 진출한지 100년이 지난 18세기 중엽 서양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8대 쇼군(將軍) 요시무네(德川吉宗, 在位: 1716~45)에 의해 난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Lee, 2014). 요시무네는 서양의 천문, 역법에 관심이 많아서 천문학자 니시키와 조켄(西川如見)을 에도에 불러 천체관측소를 만들었고,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온 망원경으로 직접 별자리를 관측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상관에 명하여 지구의(地球儀), 시계, 마구(馬具), 총(銃), 등의 기기와 의서(醫書), 회화, 지도 등의 서적을 수입하게 하였으며, 타조, 칠면조, 잉꼬, 말, 개, 고양이, 참새 등의 동물도 서양에서 수입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때 서양에서 들어온 고구마와 사탕수수도 일본에서 대량으로 재배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근세 일본의 농업과 과학사에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였다(Song, 2001).

이처럼 난학은 일본에서 여러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의학이었다. 당시에 일본의 의학은 중국 의경(醫經)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부정확한 부분이 많았다. 이때 벨기에 의학자인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년~1564년)가 쓴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를 3인의 일본인이 4년에 걸쳐(1771~1774) 번역하여 '해체신서(解體新書)'라는 책명으로 출간하였다(Lee, 2014). 일본인들은 글 위주의 한의학서적에서 볼 수 없었던 서양의 정밀한 해부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는 청각중심에서 시각중심으로 이동하는 감각적 변환이 네덜란드, 유럽,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및 러시아, 일본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Lee, 2014).

한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상관의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도 일본의 박물학, 약제, 침술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침술

에 대해 쓴 ‘지요일언(知要一言)’을 익혀 자신의 신체에 직접 침을 놓는 실험을 하였고, 일본 침술을 유럽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의 동·식물도 조사하였는데, 일본인 화가 가라하라 게이가(川原慶賀, 1786~1860)의 도움을 받아 식물과 동물을 세밀히 묘사하여 본국에 보고하였다(Lee, 2014). 이처럼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일본을 조우했던 유럽 박물학자와 의학자는 서양 박물학과 의학을 일본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박물학과 의술을 유럽에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지마는 일본 막부가 유럽의 문물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무역항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사이의 문화 접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역동적인 공간이었고 난학의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Lee, 2014).

Ⅲ. 17-18세기 네덜란드와 일본의 복식문화교류

1. 네덜란드의 복식

17세기는 영국의 시민전쟁과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에 의한 공화정 수립, 폴란드(Poland)의 스페인(Spain)으로부터 독립 등 유럽 전역이 정치적 긴장과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기였다.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들 가운데 두 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가 청교도적 생활양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과장된 후기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의 의상에서 탈피하여 복식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Black & Gariand, 2005).

17세기 전반은 중상주의의 모험 정신으로 동양과의 무역을 선도했던 네덜란드가 세계 상업의 중심지로 유럽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네덜란드 복식 스타일은 스페인과 전혀 다른 유럽의 패션으로 전파되었다(Chae, 2007). 네덜란드 복식은 귀족 중심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정신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생활신조에 따라 복식의 실용성과 합리성을 일반화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왕족과 지배계층의 남성들 또한 활동하기 편한 복식을 착용하기 시작함으로써 복식사상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하였고, 프랑스와 함께 17세기 초반 유럽의 복식 유행을 주도하였다(Chae, 2007).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초기에는 스페인

〈Fig. 3〉
Dirk Jacobs and his Family
in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Black & Gariand, 2005, p. 227)

〈Fig. 4〉
Women's Wear in the
Netherlands
(1635)
(Chae, 2007, p. 84)

〈Fig. 5〉
Women's Wear in
the Netherlands
(1643)
(Chae, 2007
p. 84)

〈Fig. 6〉
Robe in the
Netherlands(1775)
(Takeda & Spilker, 2010, p.
175)

〈Fig. 7〉
Waisted Coat with
Chinoiserie Patterns in the
Netherlands(in the 18th
century)
(Takeda & Spilker, 2010,
p. 58)

〈Fig. 8〉
Robe with Chinoiserie
Patterns in the Netherlands
(1740)
(Peck, 2013, p. 243)

복식 스타일을 고수하였으며, 특히 고령자들은 큰 러프 칼라(ruff collar)를 고집하였다. 17세기 초기의 회화 '더크 제이콥스와 그의 가족'〈Fig. 3〉을 보면 가운데의 노부부는 뽀뽀한 러프칼라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남·녀 모두 새로운 유행인 폴링 밴드 칼라(falling band collar)의 로브(robe) 혹은 더블렛(doublet)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코르셋(corset)으로 조인 길고 가는 허리는 사라지고 대신 남녀 구별 없이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자연스러워졌고 허리선이 높아졌다(Chae, 2007). 장식이 많이 사라진 대신 〈Fig. 4〉, 〈Fig. 5〉에 제시된 것처럼 정교한 레이스(lace) 장식이 폴링밴드칼라와 턱백 커프스(turn-back cuffs)의 가장자리에 늘어났고 남성들은 브리치스(breeches)와 부츠 사이의 캐논(cannon)에도 정교한 레이스를 장식하였다(Chae, 2007).

18세기에 접어들자 네덜란드는 복식 유행의 주도권을 프랑스에 넘겨주고 프랑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여성의 지위는 소재와 옷감의 품질에서 나타났고, 〈Fig. 6〉과 같이 아름답고 기능적인 것과는 무관한

레이스나 자수 트리밍(trimming)이 추가되었는데 여성들은 우아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착용하였다(Black & Gariand, 2005). 그러나 이것도 프랑스의 복식에 비하면 매우 검소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식으로 검소한 네덜란드 시민정신이 그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서유럽 전체 남자 의복은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 18세기 초기의 남성복식은 현대 남성복의 요소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상의인 쥐스토코르(justaucorps), 웨이스트 코트(waistcoat), 브리치스(breeches)의 조합을 이루었고, 일상복과 예복은 장식의 유무로 구분하였다(Kim & Bae, 2014). 또한 18세기 동양의 이국적인 분위기의 시누아즈리(chinoiserie)문양이 애용되었는데, 〈Fig. 7〉, 〈Fig. 8〉에서 볼 수 있다 (Shin, 2006). 이렇듯 17세기부터 등장한 동양풍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왕실과 상류계층에 유행하면서 점차 대중들에게 확산되어 18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전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2. 일본의 복식

일본의 17세기 에도시대(1603~1867)는 유례없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도시가 확장된 시기였다. 이 시기 에도(현재 Tokyo)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발전하였고, 부유한 대중들이 복식문화를 주도하는 가운데서도 주요 소비자는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라이(武士)였다. 일본의 지배층은 그들의 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대신에 직물의 소비로 신분을 과시함으로써 직물산업이 확대되었고, 점차 사무라이의 복식은 지배 계급에 어울리는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Takeda & Spilker, 2010). 그러나 하위신분인 상공업자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복식에 지나친 사치를 하게 되자 1615년에 수차례에 걸친 복식금령(服飾禁令)과 공고문을 통해 신분에 맞는 의복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사농공상(士農工商) 중에서 무사는 신분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정교한 견직물의 착용이 대체로 허락되었던 것에 반해서 농민 이하는 면, 마에 한정되었다(Peck, 2013).

복식금령은 계층 간의 차이를 직물, 장식기법, 색으로 통제하였다. 비록 이 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는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치와 규제사이를 넘나들었다. 부유한 상공인들은 규제된 색의 옷감을 안감과 속옷으로 사용하고 겉에는 수수한 색의 기모노를 착용하여 일본복식의 미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수수한 색의 검소한 직물을 사용하였다(Koikei, 2005; Peck, 2013). 이러한 복식금령은 소비를 제한 시켰으나 게이샤(藝者)들은 자주 법을 어기고 <Fig. 9>와 같은 최신 유행의 사치스러운 복식을 착용하였다(Fogg, 2013). 이 시기에 일반 남·녀는 <Fig. 10>에 제시된 것과 같은 기모노를 착용하였고, 여자의 기모노는 실제길이보다 길게 제작하여 착장 시 남는 부분을 허리주변에서 끈으로 묶어 올렸다. 문양과 색상에 있어서도 남성의 기모노보다 화려하고 다양하였다(Koikei, 2005). 이처럼 이 시기 일본의 지배계층은 부와 신분을 복식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과시하였다고 한다(Fogg, 2013).

17세기 초·중기에 일본 부유층은 매년 유행하는 견직물을 중국에서 수입하였는데, 현존하는 수입품 목록을 보면, 1641년 말 한해에 중국으로부터 견직물 130,000필을 수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600년대 일본의 도시인구가 백만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모든

<Fig. 9>
Costume of a Geisha in the 18th
century,
(1789)
(Fogg, 2013, p. 76)

<Fig. 10>
Kimono in the 18th century
(Fogg, 2013, p. 77)

사람이 견제품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유행에 맞는 직물을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중국은 특별히 일본 시장의 요구에 맞는 직물을 수출해서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Peck, 2013). 에도 후기에는 일본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있었던 색감 좋고, 이국적이며, 다양하게 염색된 면직물인 사라사(saraca)를 인도로부터 수입하였고, 이 역할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담당하였다. 18세기에 일본에서는 직접 이러한 견직물과 면직물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1781년에 흑백 도안과 색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출판되었다. <Fig. 11>은 도안책의 흑백 문양이고 <Fig. 12>는 이 문양을 프린트한 직물로 제작한 담배 주머니이다(Peck, 2013).

에도시대 중기 기모노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미야자키 유젠(Miyazaki Yuzen, ?~1758)이 발명한 염색법인 유젠조메(Yuzen-zome)이다(Miyazaki Yuzen, 2014). <Fig. 13>에 제시된 것과 같은 다양하고 정교한 문양이 염색됨으로써 직물의 문양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모두 일본 취향이었고, 복식의 형태도 1854년까지 서양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쇄국정책 때문이었다(Fogg, 2013). 일본이 서양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군복의 도해서(圖解書)를 1858년에 번역하여 1867년 육군의 전습대(伝習隊) 조직과 함께 서양복의 제도를 규정한 후부터였다

(Koikei, 2005). 이렇듯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달한 직물과 염색기법으로 일본 복식의 고유성이 19세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3. 네덜란드에 전파된 일본 복식

네덜란드 상관의 일본 체류기간은 1년이었으며, 체류와 교역허가는 에도 막부가 명하는 에도참부(江戸参府)에 의해서 부여되었다(Fukai, 2011). 에도참부를 위해서는 현상품이 필요하였는데 주요 현상품은 향료와 장뇌, 와인, 직물 등이었고, 현상품을 바친 후 다시 데지마로 돌아갈 때 쇼군은 정교한 기모노(Kaiserlijke rocken, 쇼군의 가운) 30벌을 하사하였다. 이 기모노는 상관장 자신의 것 두세 벌만 남기고 네덜란드 본국으로 보내졌는데, 이 중 하나로 네덜란드에 소장된 <Fig. 14>의 일본 가운을 살펴보면 견직물과 문양이 18세기 동인도회사의 무역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전형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기모노와 비교할 때 직물과 문양은 같으나 구성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소매의 부착방식인데 <Fig. 14>의 일본 가운은 <Fig. 15>, <Fig. 16>의 일본 기모노 소매의 배래부분과 다르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Peck, 2013). 아마도 활동성을 고려하여 서양식으로 소매통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매는 인도에서 일본

<Fig. 11>
Pattern Drawing(1781)
(Peck, 2013, p. 65)

<Fig. 12>
Cigarette Pouch
in the 18th century
(Peck, 2013, p. 64)

<Fig. 13>
Yuzen-Zome Dyed Fabrics
in the middle of the Edo Period
(Fogg, 2013, p. 75)

가운이 제작되면서 부터는 아예 서양복 소매 구성방법으로 변형되어 초기의 일본산 가운인지 후기의 인도산 가운인지 소매로 구별이 가능할 정도이다.

또한 일본 가운(Japanese rocken)이라고 불리는 <Fig. 17>에 제시된 기모노를 보면, 에도시대에 잠옷으로 사용되었던 솜이 들어간 기모노와 유사하다. 추운 네덜란드에서 솜이 들어간 따뜻한 가운이 남성의 멋스런 실내복으로 인기를 모아서 <Fig. 18>에 제시된 초상화의 옷차림으로까지 등장한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들어온 일본의 기모노는 아름다움과 진귀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가볍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해서 유럽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 유럽에 실내복이 유행하자 네덜란드 상관은 매년 하사받은 몇 십장의 기모노만으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틀염색(型染) 등의 기술을 갖고 있던 인도 벵골만(Bay of Bengal) 코로만델(Coromandel) 지역에서 일본산 기모노와 비슷한 실내복을 생산하게 되었다(Fukai, 2011). 이 결과 기모노식으로 재단한 인도의 사라사

로 만든 가운과 일본의 문양인 송죽매(松竹梅)가 프린트된 기모노풍 실내복이 인도에서 제작되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Fig. 19>, 굵기야 이를 모방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실내복이 제작되었다. 특히 <Fig. 19>에 제시된 실내복의 소매는 소매산이 있는 서양복 소매구성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가운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 일본 보다 인도에서 만든 대체품이 유럽에서 더 많이 유통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에서는 일본산이 아니더라도 실내복은 일본 가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Fukai, 2011).

일본 가운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무역 항구중 하나인 델프트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1632~1675)의 초상화에도 다수 나타난다. 베르메르의 작품인 <Fig. 20>, <Fig. 21>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소매와 품에 여유가 있는 일본식 가운을 착용하고 있다. <Fig. 22>, <Fig. 23>의 초상화 속 인물도 일본 가운인 기모노를 착용한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 가운을 벤안(banyan)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17세기 네덜란드 초상화에서 편안

<Fig. 14>
Japanese Rocken
in the 17th century
(Peck, 2013, p. 262)

<Fig. 15>
Patterns on Kimonos
(Peck, 2013, p. 262)

<Fig. 16>
Kimonos
in the late 17th century
(Peck, 2013, p. 264)

〈Fig. 17〉
Japanese Gown
in the 17th and the 18th
century
(Fukai, 2011, p. 33)

〈Fig. 18〉
Portrait of Stefan Borte
(1675)
(Fukai, 2011, p. 37)

〈Fig. 19〉
Japanese Gown with
Drawings of Pine trees,
Bamboos and Apricot
trees
in the 18th century
(Fukai, 2011, p. 35)

〈Fig. 20〉
The Geographer(1668~69)
(Schneider, 2013, p. 74)

〈Fig. 21〉
The Astronomer(1668)
(Schneider, 2013, p. 76)

〈Fig. 22〉
Jan Verkoljein
in the 17th century
(Schneider, 2013, p. 75)

〈Fig. 23〉
Netherlands(1693)
(Baumgarten, 2012,
p. 112)

한 복장의 벤안을 착용한 인물은 학자나 철학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Baumgarten, 2012; Takeda & Spilker, 2010). 이렇듯 네덜란드에서 일본 가운은

상류사회 신분을 암시하는 복식으로 착용되었고, 이는 일본의 복식문화를 네덜란드의 상류층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의 중

심이 상류층에 의해서 주도되었듯이 복식의 전파도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일본에 전파된 네덜란드의 복식

17세기 일본에는 네덜란드 상인과의 교역으로 다양한 유럽의 직물이 들어왔다. 중국에서 들어온 벨벳, 다마스크, 유럽에서 들어온 모직물의 색은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 다양하고 선명한 색상이었다. 특히 모직물은 에도시대 사무라이들이 갑옷 위에 입었던 소매 없는 재킷인 <Fig. 24>, <Fig. 25>에 제시된 것과 같은 진바오리(陳羽織) 제작에 사용되었다(Peck, 2013). 17세기에 모직물 사용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1683년 정부 포고의 예를 들면, 상인과 장인을 포함한 시민들은 모직물 사용을 금하였다. 허용하는 직물의 목록은 자주 바뀌었으나 모직물은 추가 되지 않았다. 즉, 사무라이 이상의 계층에서만 모직물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를 지키지 않고 많은 이들이 모직물을 의복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반적으로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 유럽산 모직물은 사무라이가 전투에 입는 진바오리에만 유일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Peck, 2013).

유럽의 모직물은 무역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유럽 상인(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들이 항해할 때마다 모직물을 거래했으며, 그 지역의

권력층에 선물로 사용하였다. <Fig. 24>에 제시된 것과 같은 유럽의 모직물로 만들어진 빨간색 진바오리는 사무라이의 신체보호 및 보온성 측면에서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 양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직물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멕시코(Mexico)에서 온 코치닐(cochineal) 염료와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화학자들이 개발한 주석을 매염제로 한 염색방법을 결합하여 빨간색 염색을 하였으므로 유럽에서 생산한 모직물에 빨간색 염색을 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Peck, 2013). 18세기에 모직물로 제작된 진바오리는 특별수비대인 쇼군의 유니폼(uniform)으로 사용되어 이 시기 모직물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중요한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Peck, 2013).

<Fig. 25> 역시 일본 사무라이의 진바오리로 중국산 실크 벨벳(velvet)으로 제작되었다. 얼핏 보면 유럽의 벨벳처럼 보이지만, 문양의 구도와 직조의 기술적인 면을 살펴보면 중국 명나라 벨벳임을 알 수 있다(Peck, 2013). 16세기 중반에 중국은 유럽시장을 위해 벨벳, 다마스크(damask) 등의 직물을 제작하여 유럽, 일본 등에 수출하였다. <Fig. 25>에 제시된 진바오리의 걸감은 벨벳, 안감은 다마스크로 제작되었고 뒷 중심에는 태슬과 문장이 장식되었다. <Fig. 26>은 황금색 문장을 등에 장식한 빨간색 진바오리로, 등 부분에 군대의 부채문장을 장식하였는데 이는

<Fig. 24>
Jinbaori
in the 18th century
(Peck, 2013, p. 177)

<Fig. 25> Jinbaori
in the 17th century
(Peck, 2013, p. 179)

<Fig. 26> Jinbaori
in the 18th century
(Peck, 2013, p. 177)

흰색 모직물에 아플리케(appliqué)로 장식한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당시 일본과 교역을 했던 유일한 서양 국가인 네덜란드는 일본의 복식을 약간의 변형을 거쳐 착용하였고 더 나아가 전 유럽에 일본 가운의 유행을 초래한 반면, 일본은 서양복식 형태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및 유럽의 모직물을 네덜란드의 상인을 통해 수입하여 일본식 의복을 제작하는데 실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17-18세기 일본의 복식문화를 고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stum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Netherlands and Japan

Category	Japan→ The Netherlands		Details of the exchanges	The Netherlands→ Japan		Details of the exchanges
Culture	-Hizen porcelains -Acupuncture, natural history, medicine		-Arita porcelains and kakiemon porcelains exported in replacement of Chinese porcelains. -Had influences on porcelains in Europe.	-Rangaku (that would include medicine, natural science and others)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sweet potatoes and sugar canes		-Entered an era of medicine of visual observation from this era of medicine of auditory observation -Prepared a foundation to welcome modernization based on developments in medicine, natural science and agriculture

Costume	-Kimono		-A Japanese gown that created a boom across Europe. -A trigger for popularity of Japonism in Europe during the 19th century	-Woolen fabrics -Dark red dye		-Imported fabrics were used to make jinbaori worn by Japanese samurai -Shapes of the Western military uniforms were accepted in the 19th century.

IV. 결론

17세기 영국을 시작으로 하여 네덜란드, 프랑스는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하여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7세기에 향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무역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아시아의 무역국가 중 일본은 쇄국정책 중이었음에도 네덜란드와 유일하게 교역을 하면서 양국의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동·서양 문화 교류를 양방향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수반되는 복식문화 교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하였다.

먼저 네덜란드에 전파된 일본 복식은 기모노인데, 교역 초기에는 일본의 기모노를 그대로 수용하여 착용하였지만 점차 그 편리성과 보온성 때문에 유럽에서 널리 유행하게 되자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인도 및 유럽 각지에서 생산되었고, 이때 소매의 서양식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모노에 즐겨 사용된 다양한 문양과 T자형의 카프탄 형식은 네덜란드에 그대로 전파되었지만, 직선재단인 일본 기모노의 소매가 입체재단인 서양식 구성으로 변형되고 소매통도 더 좁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의 기모노는 남, 녀 구분이 없이 착용하였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일본 가운이라는 명칭으로 남성의 실내복으로만 착용되었다. 이는 일본의 기모노가 동·서양 무역을 통하여 네덜란드에 전파될 때 남성중심의 상류 지배계층에서 선호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일본에 전파된 네덜란드 복식은 사무라이의 군복 위에 입는 진바오리의 직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바오리는 17-18세기 일본 지배계급인 무사들의 복식으로, 18세기에는 진홍색 염색을 한 모직물, 벨벳, 다마스크 등을 네덜란드 및 중국에서 수입하여 진바오리를 제작하였다. 일본은 사회계층 간의 복식규제와 사치규제, 쇄국정책 등이 복식 발전과 교류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층의 복식인 진바오리는 서양의 직물을 받아들여 제작한 실용성을 보여주었다. 일본에 서양복식의 형태

가 받아들여져 착용된 것은 19세기 이후로, 일본의 쇄국정책으로 오히려 복식문화는 오랫동안 고수되어 19세기 자포니즘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서양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과 교역을 했던 네덜란드는 기모노의 소매를 약간의 변형을 거쳐 착용하였고 더 나아가 전 유럽에 일본 가운의 유행을 초래한 반면 일본은 서양복식 형태는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및 유럽의 모직물을 네덜란드의 상인을 통해 수입하여 실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도 막부시대 일본의 복식문화를 고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식의 교류는 전반적인 문화의 교류가 선행된 이후에 상당한 시차를 두고 형성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17-18세기 일본의 자연과학은 서구의 영향은 받았지만, 일본 복식은 오히려 서양에 영향을 주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17세기의 네덜란드 복식은 19세기의 근대 서양복식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17세기 일본 복식이 네덜란드의 복식에 미친 영향은 복식사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유럽 타 국가의 동·서양 문화 및 복식 교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통시적 관점에서 양방향 동·서양 문화전파에 대한 연구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Asada, M. (2004). *The east India company*. (H. J.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Papier.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Arita Sanpo (n.d.-a). Retrieved from http://www.arita.jp/k.ew.hp.transer.com/spot/post_3.html
- Arita Sanpo (n.d.-b). Retrieved from http://www.arita.jp/k.ew.hp.transer.com/spot/post_3.html
- Bang, B. S. (2009). Chinese trade ceramics for europe and southeast asia market in the 17th century. *The Art History Journal*, 33(1), 195-225.
- Baumgarten, L. (2012). *What clothes reveal*. London, U.K.: Yale University Press.
- Black, J. A. & Gariand, M. (2005). *A history of fashion*. (K. S. Yoon,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Gandhi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CCTV 30-minute economy team (2012). *Trade war*. (S.

- D. Hong,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RH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Chae, K. S. (2007). *The Trend of World fashion*. Paju, Republic of Korea: jigu publishing co.
- Daimyo (n.d.). In *Daum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kkw000057446&q=%EB%8B%A4%EC%9D%B4%EB%A4%98>
- East India Company of the Netherlands (n.d.). In *Daum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3n3905a>
- Fogg, M. (2013). *Fashion the whole story*. London, U.K.: Thames & Hudson.
- Fukai, A. (2011). *Japonisme in Fashion*. (E.J. Hur,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JnC Publishing Corporation.
- Joo, K. C. (2005). Featured articles : Globalization and hegemony in historical perspective :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asian commerce: the first phase of globalization, *American Studies*, 28(1), 1-32.
- Kakiemon porcelains (n.d.). In *Daum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enc.daum.net/yclopedia/view/b01a0704a>
- Kim, J. H. (2007). The inflow of western learning into the modern Japan and the role of Nagasaki Japanese interpreters for the Netherlands in the 17-18th century. *History of Oriental Politics and Thoughts*, 7(1), 305-330.
- Kim, M. E. & Bae, S. J.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stume patterns between 18th century France and Chinese Qing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7), 29-44.
- Koikei (2005). *Costume History and Life Culture History of Japan*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E.J. Hur,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Eomunhaksa.
- Koo, T. H. (2008). Bloom of Choson pottery culture in Japan. *Yeoksa Bipyeong*, 1(85), 168-201.
- Lee, J. C. (2014). *Tropicalizing early modern Japan's rangaku: A world geo-history perspective*. Seoul, Republic of Korea: Alma.
- Lee Sam-pyeong (n.d.). In *Daum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4564>
- Miyazaki Yoozen (n.d.). In *Daum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8m1726a>
- Netherlands (n.d.). In *Wikipedia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B%8D%9C%EB%9E%80%EB%93%9C>
- Peck, A. (2013). *The worldwide textile trade 1500~1800*. London, U.K.: Thames & Hudson.
- Saeng, J. J. (2003). The east India company of the Netherlands in the field of asian trade business. *Conference of Academia Koreana Myongji University*, 2003(9), 45-59.
- Schneider, N. (2013). *Jan Vermeer*. Los Angeles, U. S. A.: Taschen.
- Shin, D. K. (2009).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pre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of Japan in the light of the premodern advance of the western europe. *Japanology Studies*, 27(1), 119-147.
- Shin, J. Y. (2006). Chinoiserie in the eighteenth-century rococo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1), 13-31.
- Song, H. C. (2001). A closed-door policy and acceptance of western learning of modern Japan. *Japan's Principles and Beliefs*, 3(1), 161-182.
- Takeda, S. S. & Spilker, K. D. (2010). *Fashioning fashion*. London, U.K.: Delmonico books prestel.
- Yang, S. Y., Choi, Y. S., & Lee, H. S. etc. (2003). *The Silk voyage*. Seoul, Republic of Korea: Cheong-ah.
- Yoshiro, W. (2013). The overseas export of Hizen porcelain and the port of Nagasaki. *Locality Humanities* 10(1), 241-255.